

EAI 이슈브리핑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①

신정부에 바라는 “비호감”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와 과제

이동률 (동아시아연구원; 동덕여자대학교)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①

신정부에 바라는 “비호감”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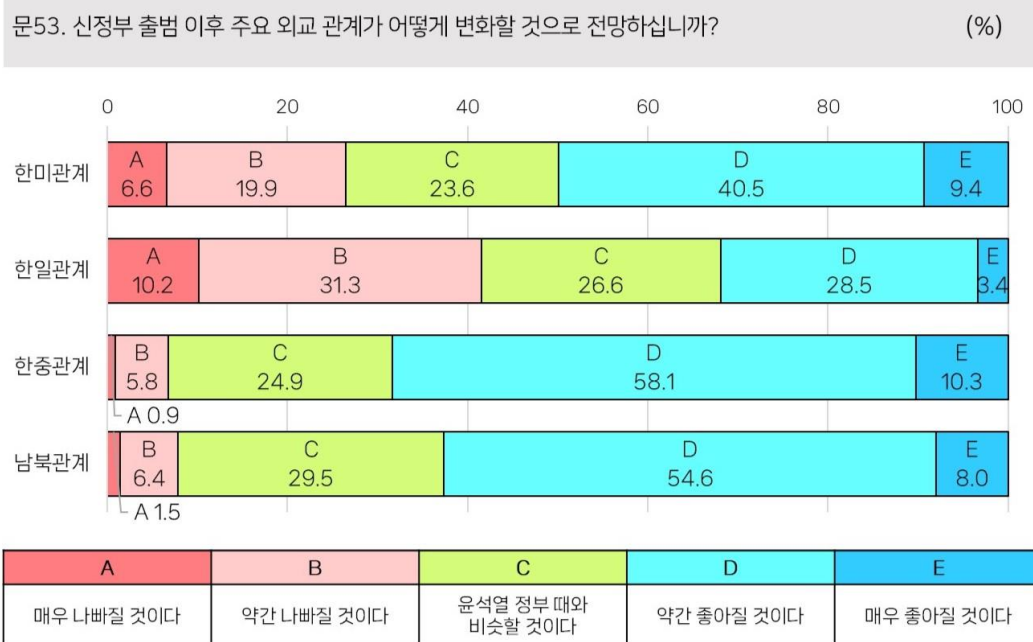
이동륜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2025년 6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동아시아 인식조사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8.3%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6.7%를 압도하고 있다. 한미관계(49.9%), 한일관계(31.9%), 남북관계(62.6%) 개선에 대한 전망과 비교해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크다. ([그림 1]) 여론은 현재 최저 수준인 한중관계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개선될 것이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한중관계가 단기간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외교 강화(49.8%), 분열된 국론 통합 노력(41.0%),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34.3%) 순으로 답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7.3%에 불과하여 한일관계 증진(6.0%)과 함께 후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 2])

주지하듯이 한중관계는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근 10년간 최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한중관계 개선의 동력도 동기도 약화된 상태이다. 여론의 기대처럼 신정부의 출범 그 자체가 한중관계의 개선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안보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침체한 상황에서 신정부가 한중관계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렵다. 특히 신정부는 준비가 충분치 않은 채 출범하면서 곧바로 동맹국인 미국과 관세 및 첨단기술, 주한미군의 분담금과 전시작전권 이전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을 놓고 어려운 협상을 해야 한다.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현실적으로 대미 외교와 협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중 외교는 한미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다.

[그림 1]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외교 관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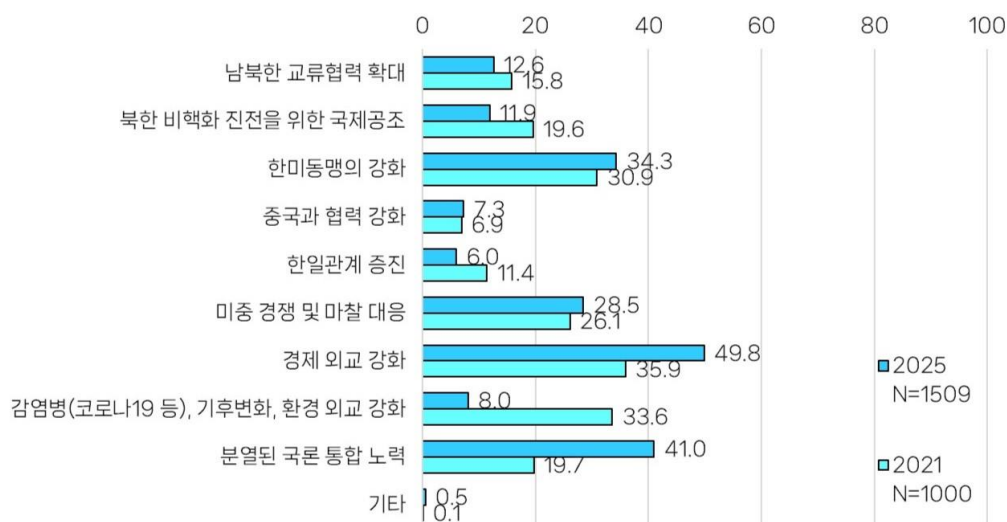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그림 2]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

문48. 신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

* 2021년 “대통령의 성공조건 인식조사”와 비교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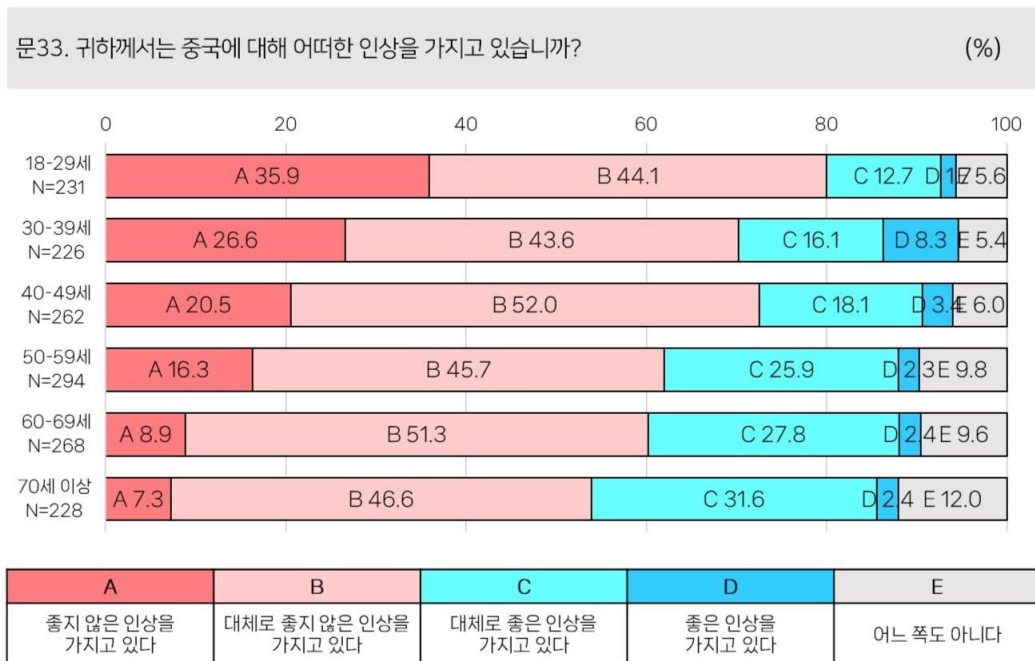
I. 중국에 대한 정서

1. 중국에 대한 비호감, 장기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호감이 있다는 응답이 2023년 14.8%에서 2024년 19.6%, 2025년 25.6%로 증가세를 보이는 하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비호감 응답이 66.3%로 여전히 높고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그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보수 성향 응답자(70.5%)와 진보 성향 응답자(63.8%) 사이에 큰 차이 없이 모두 높다. 오히려 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20대의 비호감은 2024년 대비 9.4%p 증가하여 80%로 가장 높다. 반면에 60대는 60.2%, 70대는 53.9%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호감 응답이 적다. ([그림 3])

반중 정서는 사실상 미래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다만 사드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2016년 이후 한중 젊은 세대의 상호 방문을 통한 직접 교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키울 기회가 줄어든 결과 비호감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향후 양국 간 교류가 회복되면 점진적으로 비호감 정서가 일정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림 3] 중국에 대한 인상(세대별)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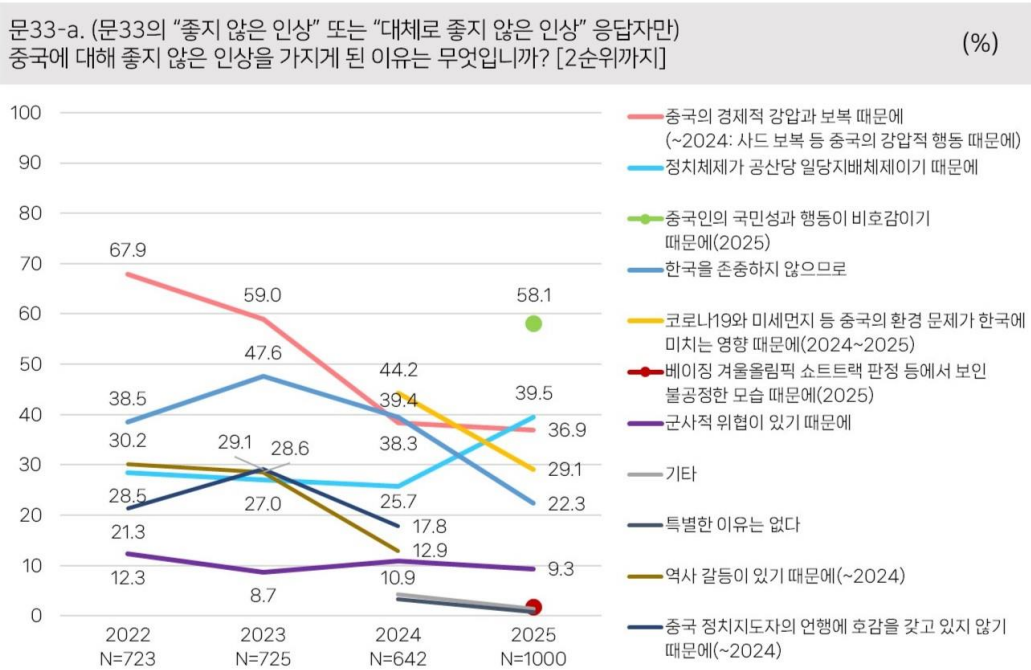
2.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도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주요 이유는 매년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 또한 한중관계 개선에 긍정적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는 이유는 2023년 조사에서는 “중국의 강압적 행동”(59%)과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47.6%)이 1위와 2위였다. 한중 간 국력의 비대칭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충격이 반영된 결과이다. 2024년에는 “미세먼지 등 중국의 환경문제”(44.2%)가 1위로 새롭게 올라오고 이어서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39.4%), “강압적 행동”(38.3%) 순으로 응답했다.

그런데 2025년 조사에서는 주목되는 새로운 변화가 있다.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58.1%)이 새롭게 큰 차이로 1위가 되었고 이어서 “공산당 일당체제”(39.5%), “경제적 강압과 보복”(36.9%)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2024년까지 비호감의 대표적 이유였던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22.3%)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29.1%)에 대한 응답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그림 4]) 사드 갈등 등으로 초래된 비호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오히려 “중국인 국민성과 공산당 체제”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비호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가 해소되기 쉽지 않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옮겨 가고 있어 비호감 정서가 장기화, 고착화할 우려를 하게 한다.

특히 공산당 일당체제 보기는 매년 여론 조사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25년에 갑자기 높은 응답이 나온 것은 짚어 봐야 할 변화이다. 체제 문제가 대표적인 비호감의 이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향후 신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과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중관계는 주지하듯이 체제 차이를 인지하고 상호 수용한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33년 전 수교를 맺었고, 이후 경제 교류와 협력 위주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 양국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체제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양국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림 4]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2022-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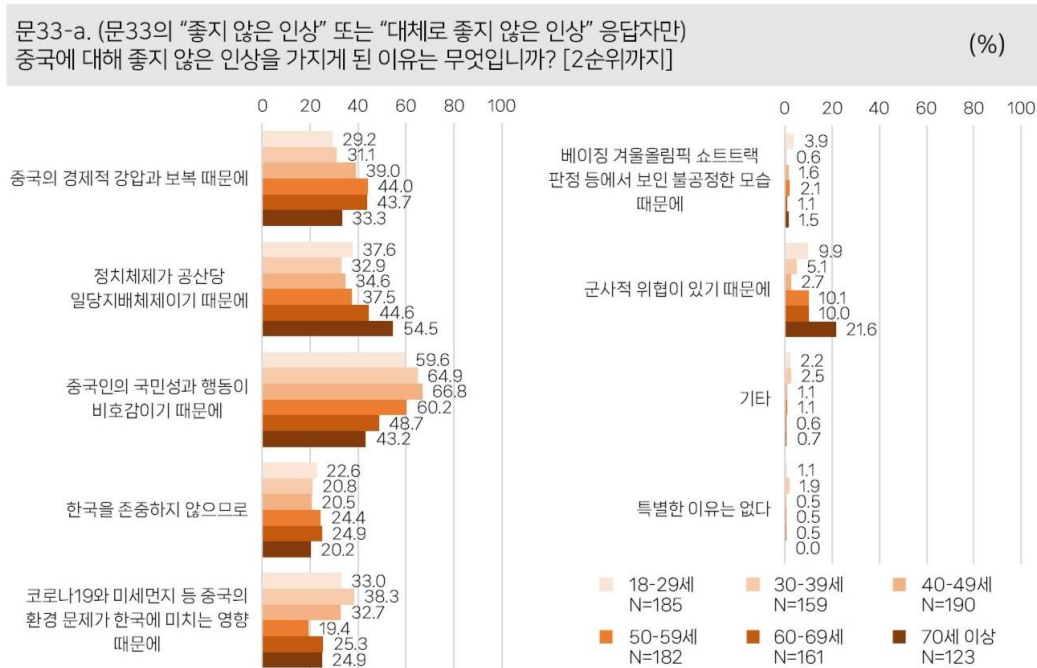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인식이 고양되면서 양국 간 체제의 간극이 확대됐다. 아울러 최근 계엄 정국에서 중국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국내 정쟁의 도구로 동원되면서 그 영향으로 중국의 체제 문제가 더욱 부각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신정부는 이러한 여론의 동향을 예의 관찰하면서, 예민한 외교 이슈가 국내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호감의 이유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70대 이상은 “공산당 일당체제”(54.5%)를 1순위 비호감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에 20~60대는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라고 응답했다(각기 59.6%, 64.9%, 66.8%, 60.2%, 48.7%). ([그림 5]) 중국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 때문”에 비호감을 갖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교류를 회피하게 된다면 지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중관계의 미래가 밝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24년 조사에서 환경문제 문항을 새롭게 추가했고 2025년 조사에서는 국민성과 행동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이고 아울러 비호감의 이유가 매년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몇 년간 더 추이를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세대별)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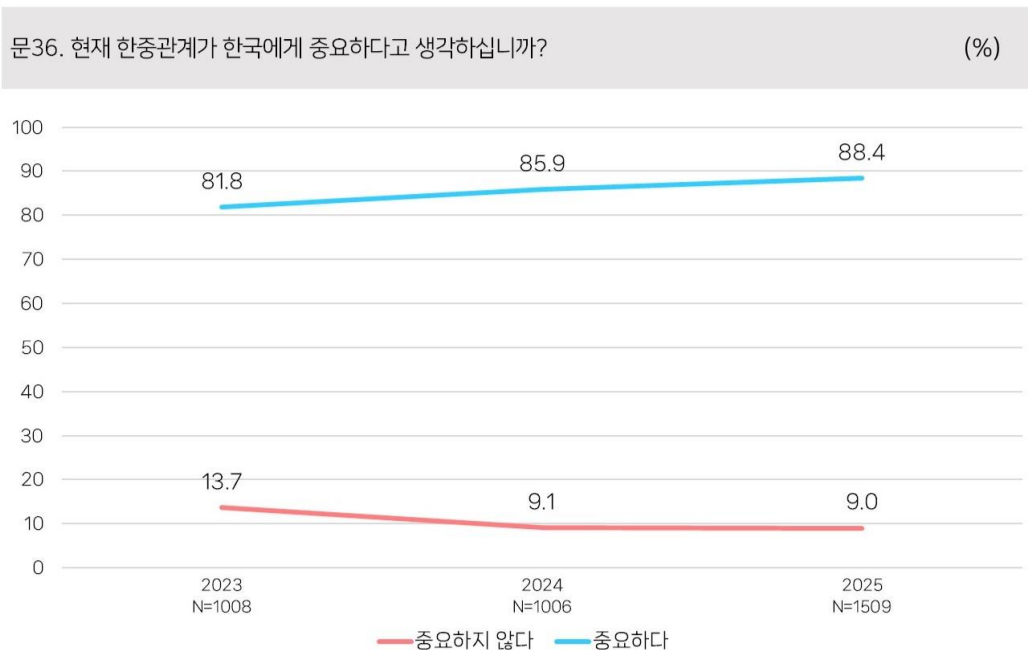
II.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

1. 한중 경제 관계는 중요하다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중관계는 중요하다는 응답은 2024년 조사보다 2.5%p 늘어 88.4%에 달하고 있다. ([그림 6]) 여기서도 세대 간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20대는 74.9%, 60대는 96.3%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무려 21.4%p의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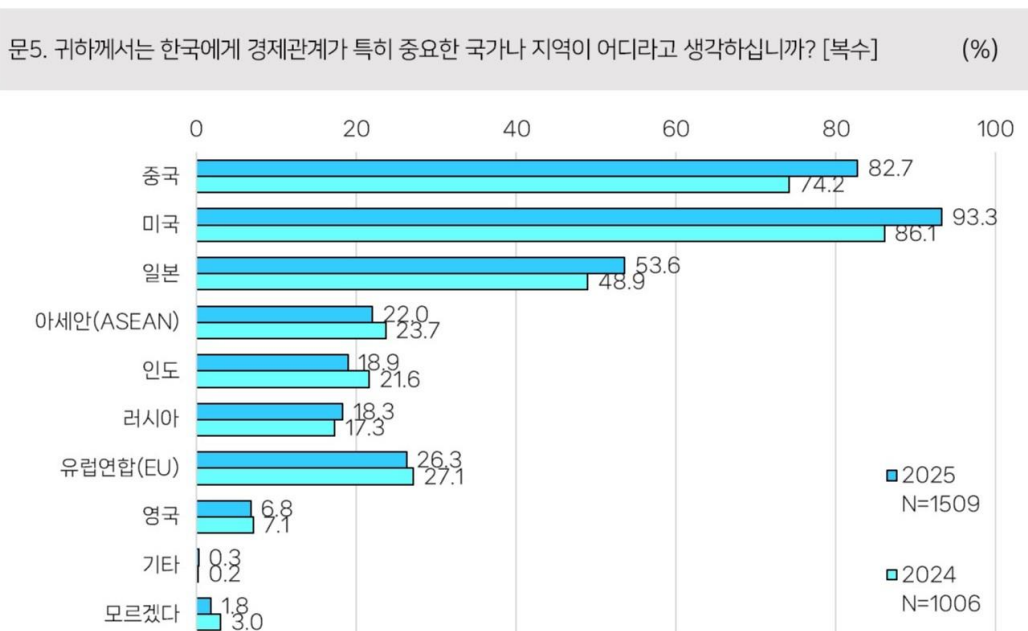
특히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024년 대비 8.5%p 증가한 82.7%이다. ([그림 7]) 중국에 호감을 느끼는 이유도 “거대 시장으로 경제적 기회가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한국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분야로는 경제교류 확대 및 첨단기술 협력(33.9%)이 1순위이다. ([그림 9])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를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이 2024년 55.4%에서 70.8%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 6] 한중관계의 중요성(2023-2025)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그림 7] 경제관계가 중요한 국가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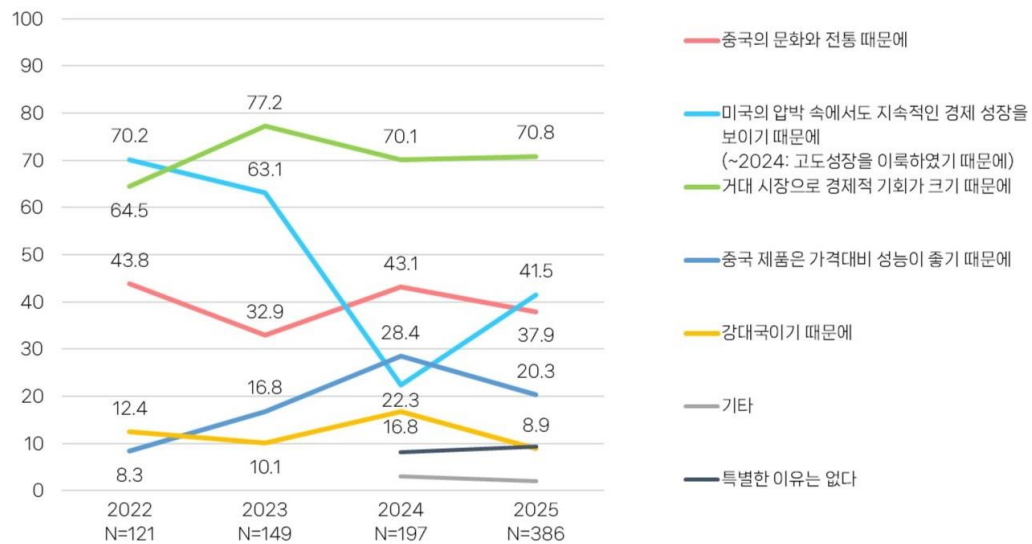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그림 8] 중국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2022-2025)

문33-b. (문33의 “좋은 인상”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 응답자만)
중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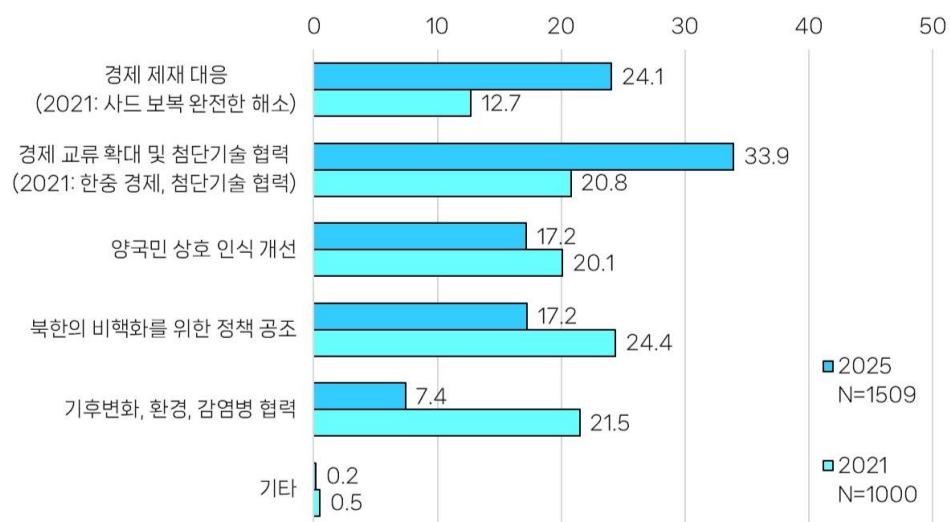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그림 9]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

문51. 신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단수]
* 2021년 “대통령의 성공조건 인식조사”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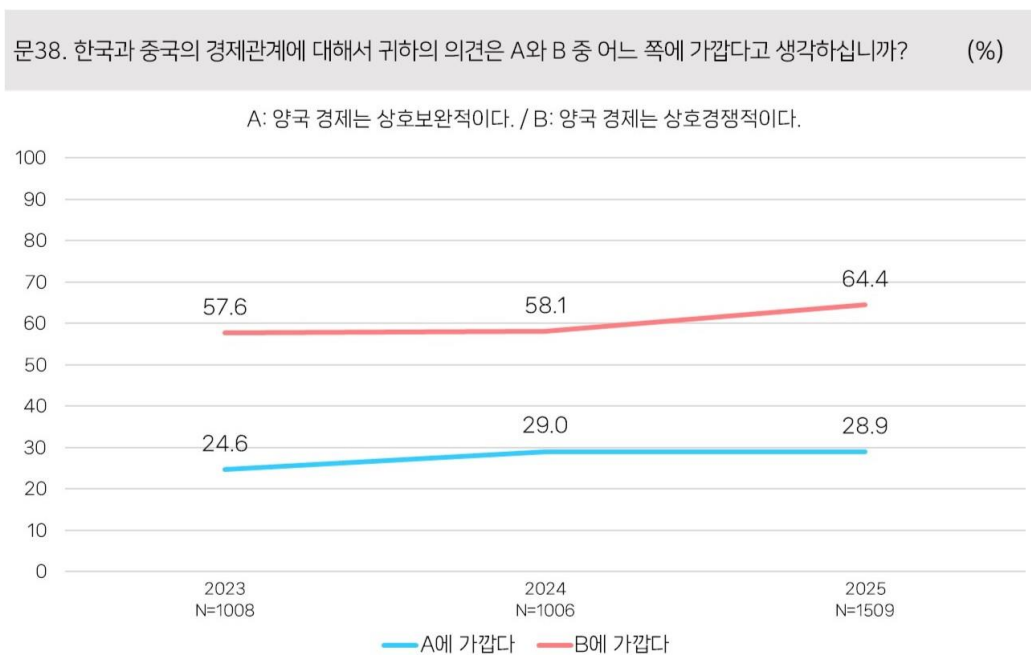
(%)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즉 한중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의 여파로 인해 국민들은 오히려 중국과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한중 경제 관계가 상호경쟁적이라는 응답이 2024년 58%에서 64.4%로 늘어났다. ([그림 10]) 실제로 중국은 예상보다 빠른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한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탈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즉 한국에 중국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중국과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식과 영역을 찾지 못한다면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의 혜택을 누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림 10]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2023-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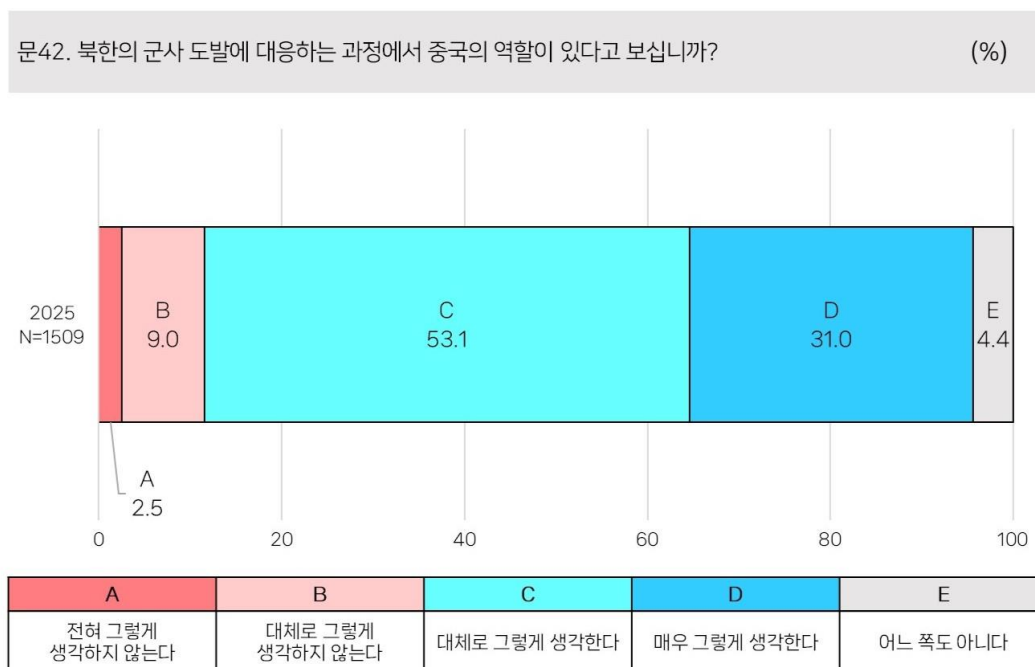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2. 북한의 군사 도발과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논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북한 문제이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다는 응답이 84.1%이다. ([그림 11])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88.3%에 이르고 있다. ([그림 12]) 특이한 것은 북한 관련 문제임에도 진보와 보수 성향 응답자 모두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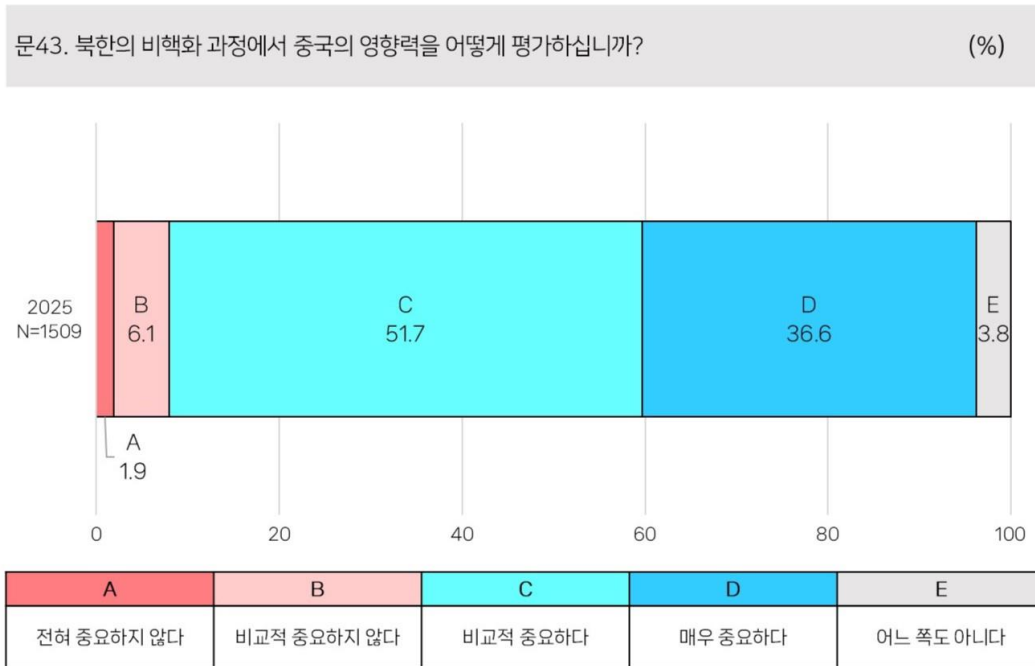
여론조사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응답자 간에 이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북한 관련 항목이다. 예컨대 신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로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남북 교류의 촉진”(41.7%)을 1위로 선택했지만,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비핵화를 위한 경제제재 유지 및 강화”(34.8%)를 1위로 선택했다. 신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공조”는 17.2%로 3위에 머물러 있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는 23.1%, 진보 성향 응답자는 10.9%가 선택하여 12.2%p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1]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중국의 역할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그림 12]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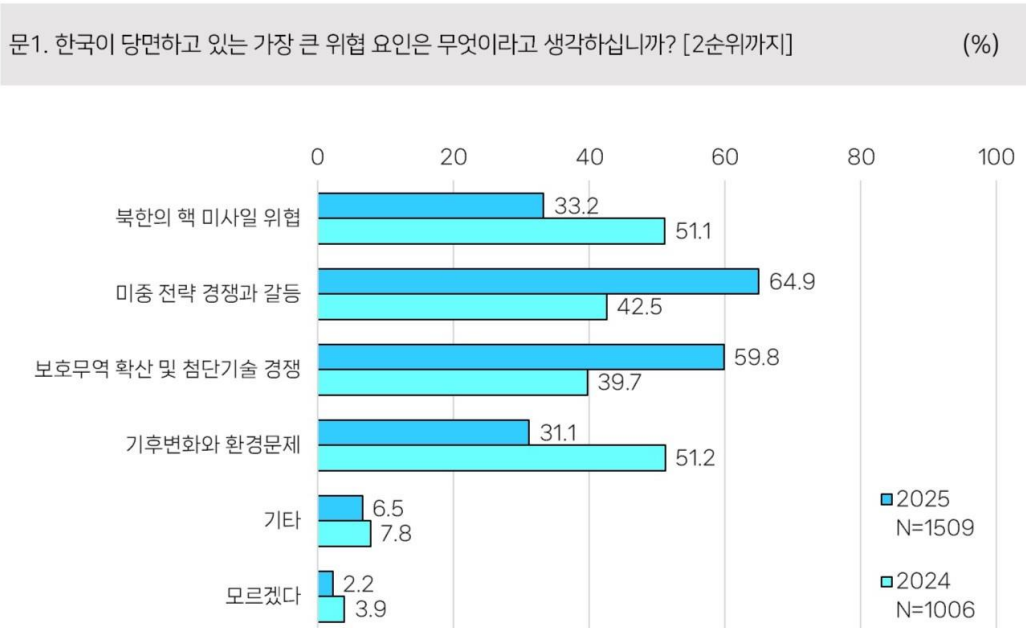
요컨대 보수와 진보 성향 응답자 모두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면에는,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기대와 요구가 있다. 즉 보수 성향 응답자는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하는 데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반면에, 진보 성향 응답자는 남북한 교류를 촉진하는 데 일종의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은 상존해 왔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 정부 모두 집권 시에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견인하고자 노력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 그 결과 오히려 한중관계마저 나빠졌다. 따라서 신정부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내의 여론을 수렴, 통합하면서 중국 역할과 영향력을 적확하고 현실성 있게 견인하여 북한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신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해서 한중관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하거나 서둘러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견인하고자 하면, 자칫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커녕 한중관계 개선의 기회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관계를 회복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Ⅲ.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하의 신정부의 정교한 전략에 대한 기대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 2024년 조사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51.2%),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51.1%)이었다. 그런데 2025년 조사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64.9%),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59.8%)이 가장 큰 위협으로 선택된 반면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33.2%)은 3위로 바뀌었다. ([그림 13])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동시에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외교 관계라는 응답도 2024년 대비 15.6%p 늘어나 90.7%가 되었으며, ([그림 14]) 진보(91.2%)와 보수 성향 응답자(91.7%) 모두가 유사한 응답을 했다.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이라는 응답도 3.8%p 늘어 83.1%가 되었다. 한중관계(43.2%)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미관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매년 57.9%(2023년), 63.7%(2024년), 70.5%(2025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15]) 아울러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4년 77.8%에서 2025년에는 86.3%로 증가했다.

[그림 13]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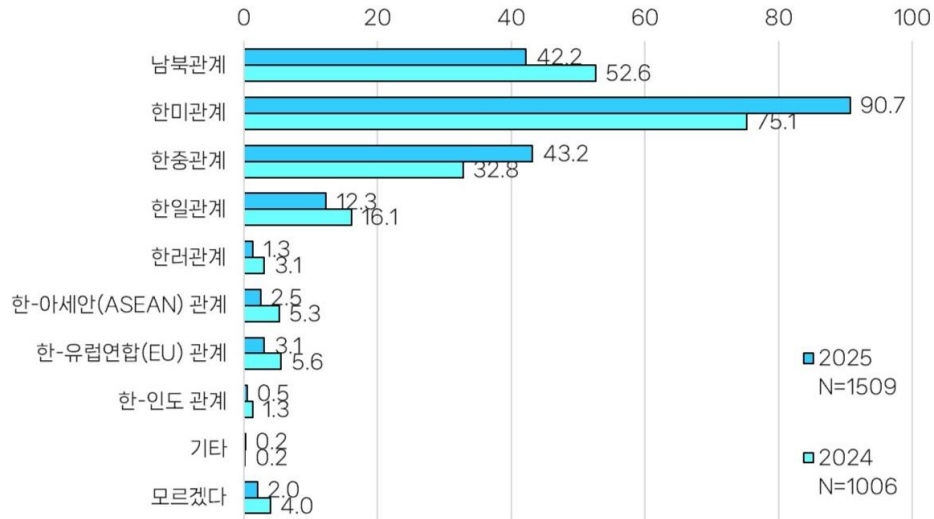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그림 14]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

문2.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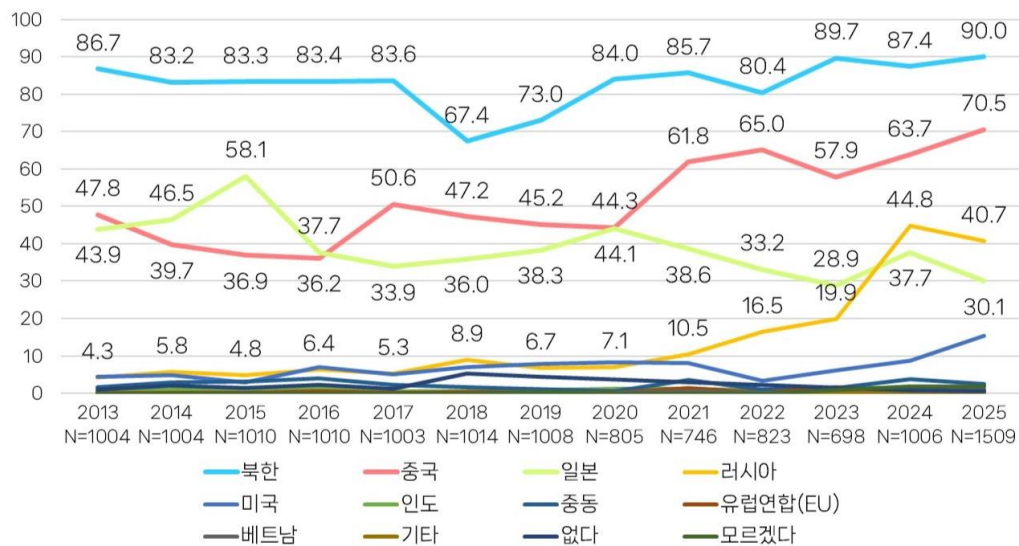
(%)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그림 15]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2013-2025)

문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은 어디입니까? [복수](%)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무역 및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은 한미관계를 더욱 압도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한미관계를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기조 위에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는 73.1%(2024년)에서 68.4%(2025년)로 4.7%p 감소하였다. 그 이면에는 시진핑 주석(71.7%)보다 더 높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75.5%)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압도적 반대(85.6%)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로 “무역, 관세 등에서 다른 나라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24년 대비 무려 45.5%p 증가하여 79.9%가 되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된 배경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미중 간 통상 갈등과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론은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관계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로 “한미동맹의 강화”보다 “경제외교 강화”를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데서도 여론이 경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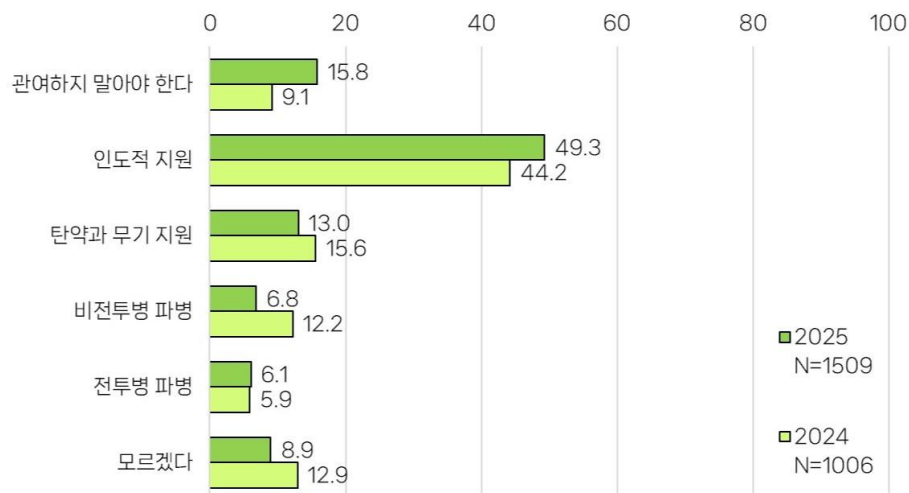
다른 한편 안보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의 역할을 지역 및 글로벌 차원까지 확장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즉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고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동맹의 강화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고 유보하는 태도다.

대만해협의 긴장과 갈등이 한국 국익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작년 대비 8.2%p 증가하여 87.5%이다. 그런데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시 한국 대응의 최대치는 인도적 지원(49.3%)이어야 하고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15.8%로 두 번째로 많다. ([그림 16]) 이는 2024년 대비 오히려 각각 5.1%p와 6.7%p 증가한 것이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도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한반도에서 후방지원 임무(42.3%)이거나 한국 방위에만 집중해야 한다(29.5%)는 응답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그림 17]) 대만해협의 긴장과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론은 한국의 안보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대만 문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중 간 심각한 갈등 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로는 중립이 2024년 46.8%에서 2025년 51.3%로 높아진 것도 이러한 여론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한국의 대응

문17.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한국은 최대 어떤 대응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그림 17]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주한미군의 역할

문18.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최대 어떤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Copyright© 2025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여론은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 안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여론은 신정부에게 경제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과 정책을 준비해서 복잡한 국제정세의 고차방정식을 슬기롭게 풀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IV. 한중관계 전망과 과제

여론은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크지만 그럼에도 경제 교류와 첨단기술 협력,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침체한 경제를 회복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신정부의 핵심 외교 과제라는 여론이 대중 외교에도 투영되고 있다. 국민들은 미중 간 통상 마찰이 격렬해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양국관계가 장기간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일단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기본적인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속히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 간 교류와 협력이 회복되면 그에 따라서 상호 비호감 정서도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의 기대도 높고, 신정부 역시 분명한 정책 의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중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 국면이 심화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에 한국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여론은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하다.

신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견제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하는 복합 난제를 풀어야 한다. 신정부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국내 반중국 정서가 발동되어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어려움에 부닥칠 우려도 없지 않다. 특히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 그리고 공산당 체제라는 본질적 이유로 비호감이 커지는 양상을 보여 성과 없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신정부는 이를 고려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미국, 북한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면서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여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이동률_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hspark@eai.or.kr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5년 6월 16일

“신정부에 바라는 “비호감”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와 과제” 979-11-6617-940-2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